

# 영한 번역과정에 나타난 외축의 명시화: 비대칭 ‘and’ 접속 구문의 화용의미 분석

조의연

(동국대학교\_서울)

## 1. 들어가기

적합성 이론(Sperber and Wilson 1986)에서 함축의미는 함축적 전제 (implicated premise)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반면에, 외축(explicature)은 언어적으로 입력된 의미 정보, 즉 논리 형식(logical form)이 의미적으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함축과 달리 명시적(explicit)이다.<sup>1)</sup> 이 논문은 번역과정에서 원천 텍스트의 외축의미가 목표 텍스트에서 명시화(explicitation)되는지 여부를 연구한다. 비록 화행의 언술행위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언어적으로 입력된 정보를 명제 의미로 완성시키거나 확대시키는데 기여한 의미보충 내용은 명시적이라는 적합

1) ‘explicature’는 ‘외축’ 또는 ‘명시의미’로 번역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번역학의 ‘명시화’ 용어와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외축’을 사용할 것이며 문맥에 따라서 ‘외축 의미’도 함께 쓸 것이다.

성 이론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번역과정에서 원천 텍스트의 외축의미는 목표 텍스트에서 명시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명시화에 대한 연구는 문학번역 연구에서 원천 텍스트의 암시적 정보 (implicit information)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up>2)</sup> (예를 들면, 신지선 2010, Gutt 1991, 1996, Zhonggang 2006). 목표 텍스트 문화에 결여된 원천 텍스트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목표 텍스트에 암시적으로 남겨진 경우, 목표 텍스트 독자들의 번역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원천 텍스트의 독자들 보다 낮아지게 된다. 번역자는 간 문화적 의사소통의 중재 또는 조정자로서, 번역 텍스트 독자들의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천 텍스트의 암시적 정보를 목표 텍스트에 명시화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sup>3)</sup> 비록 이 암시적 정보가 문맥이나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쉽게 추론이 가능하더라도 이 정보는 언어적으로 입력된 논리 형식의 발전에 기여하는 화용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암시적이다. 예를 들어, 아래에 소개된 한국어 원천 소설 텍스트의 내용 “누우렇게 변색된 밀가루 빵”의 번역을 보기로 하자.

<예시 1>

ST 다리 위에는 좌판 위에 ..... 누우렇게 변색된 밀가루 빵, .....(을) .....  
팔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 있었고 .....<sup>4)</sup>

- 2) 일반적으로 ‘암시적 정보’에서 ‘암시적’이라는 용어는 발화되지 않은 정보를 지칭하는 이론 중립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암시적 정보’와 ‘함축적 정보’는 구분되고 있다. ‘함축적 정보’의 ‘함축’은 적합성 이론의 틀 개념에서 사용되고 있다.
- 3) Vinay and Darbelnet(1995: 342)은 ‘명시화’를 ‘문체적 번역 기술’로 보며 이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a stylistic translation technique which consists of making explicit in the target language what remains implicit in the source language because it is apparent from either the context or the situation.

일반적으로 번역학 연구에서는 원천 텍스트에 발화되지 않은 정보가 목표 텍스트에 발화되어 텍스트화된 현상을 명시화로 본다. 이 논문이 기초하는 명시화 개념은 3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TT On the sides of the bridge, middle-aged women were selling .....  
yellowish bread that was probably past the expiration date, .....

“누어렇게 변색된 밀가루 빵”은 “yellowish bread that was probably past the expiration date”로 번역되었는데 이 첨가된 정보 “(that) was past the expiration date”는 원천 텍스트 “다리 위에는 좌판 위에 누어렇게 변색된 밀가루 빵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있었(다)”의 명제 의미와는 별개의 독립된 맥락 정보로부터 비롯된 암시적 정보이다. 번역자는 텍스트에 주어진 정보 ‘변색된 빵’으로부터 ‘빵이 변색되면 기간이 오래되었을 수 있다’라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스스로 맥락 정보로 제공하여 주어진 텍스트 정보 ‘(그) 밀가루 빵은 변색되었다’와 결합시켜 ‘그 빵은 기간이 오래되었을 것이다’라는 함축 결론(implicated conclusion)을 얻는다. 이 함축적 결론은 다시금 번역 텍스트의 영어권 독자들의 ‘식품의 유효기간’에 대한 문화를 고려하여 ‘그 빵은 아마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것이다’라는 정보로 변환되어 영어 목표 텍스트에 명시화되고 있다.<sup>5)</sup> 즉, 목표 텍스트에 명시화된 “that was probably past the expiration date”의 의미 내용은 ‘그 빵은 기간이 오래되었을 것이다’라는 함축적 결론이 문화적 변용까지 겪은 함축 의미로 원천 텍스트의 암시적 정보이다.

반면에 외축의미에 기여하는 화용 정보는 그 특성이 “말 안했지만 말한 것으로 여겨지는 의미 내용”(국지연·이성범 2007) 또는 “직접적으로 전달된 의미 내용”(content that's *directly conveyed*)(Bach 2006: 5)이기 때문에,<sup>6)</sup> 발화되지 않았지만 언어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직관에 용이한 의미 내용이기 때문에 말해진 것(what is said)의 일부로 제시되기도 하였다(Recanati 2004). 따라서 적

4) 이 논문의 1장에서 소개된 원천 텍스트 예시는 송영(2008)의 『부랑일기』 15, 20쪽에서 각각 발췌되었으며 이의 목표 텍스트는 Jason Park의 번역 텍스트, 13, 17쪽에서 인용하였다.

5) 이 소설 텍스트의 문맥 상황이 전제하는 좌판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유효기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 텍스트에 첨가된 이 정보는 목표 텍스트 독자들의 인지 환경이 고려된 해석으로 이 해석의 책임은 번역자에게 있다.

6) 이러한 외축의미는 해당 발화의 명제의미를 완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거나 명제의미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Recanati(2004)는 이를 ‘what is said’의 일부로 보며 ‘화용적으로 말해진 것’(the pragmatically what is said)으로 부르기도 한다.

합성 이론에서 외축의미는 명시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아래의 한국어 원천 텍스트 ‘어쩌면 저렇게도 닮았을까’는 화자에 의해 발화된 구성 성분만으로는 명제의미를 형성하지 못한다.

<예시 2>

ST <영락없이 그놈 얼굴이구먼. 어쩌면 저렇게도 닮았을까.>

TT “This is exactly my son's face. How similar you are to my son.”

해당 발화에서 어휘 요소 ‘닮다’는 번역자로 하여금 발화되지 않았지만 통사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빈 성분의 정보를 보충하여야만 소설 속의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의미가 형성된다. 이 정보는 다름 아닌 ‘청자’와 ‘화자의 아들’로 이 정보는 문맥으로 부터 해당 발화의 논리 형식 ‘x IS SIMILAR TO y’의 미확정 논항 x, y에 지시 값을 부여하여 [the addressee is similar to the speaker's son]으로 발진된 해석을 발생시킨다.<sup>7)</sup> 이 보충된 화용 정보는 앞에서 논의한 ‘그 빵은 아마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것이다’와 같이 독립된 함축적 전제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다른 전제된 명제와 결합되어 추론을 거쳐 발생한 함축적 결론도 아니다. 이와 같이 외축은 “말 안했지만 말한 것으로 여겨지는 의미 내용”으로 채워지거나 보충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8)</sup>

이와 같이 외축의미를 형성시키는데 의미 보충된 화용정보는 번역과정에서 목표 텍스트에서 명시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상호 사건 관계 접속어 ‘and’ 발화문들이 한국어 목표 텍스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연구할 것이다.

- (1) a. He had the grippe, and I figured I probably wouldn't see him again till Christmas vacation started.  
 b. I wear a crew cut quite frequently and I never have to comb it much.  
 c. She hung up my coat in the hall closet, and I sort of brushed my

7) 발화된 표현의 통사적 특성에 의해서 화용적 정보가 보충된 과정을 포화(saturation)라고 한다 (Recanati 2004).

8) 외축의 특성은 이 논문의 2장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hair back with my hand.

이를 위해 제로미 셀린저(Jerome Salinger)의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의 두 번역본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번역 텍스트는 이덕형(1985)의 번역본이며 두 번째 번역 텍스트는 김옥동·염경숙(1994) 공역의 번역본이다. 이 두 번역본의 번역가들은 화용적으로 보충된 상호 사건 관계의 해당 의미정보를 명시화시키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의 차이는 보일지라도 통계적으로 모두 해당 외축의미를 명시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우리는 다음 절에서 적합성 이론의 외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3절에서는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의 두 번역본 1장에 나타난 상호 사건 관계 'and' 접속어 구문의 번역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이 외축의미가 번역가의 글쓰기를 통하여 명시화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sup>10)</sup>

## 2. 상호 사건관계 'and' 접속 구문의 외축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입력된 의미에 화용적 의미가 추가적으로 보충되어 발화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은 널리 잘 알려져 있다(Grice 1975, Sperber and Wilson 1985, 2006, Carston 2002, Recanati 1991, 2004). 화용적으

9) 번역연구에서 '명시화'는 번역의 '보편적 법칙'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번역 연구에서 이 보편적 법칙은 절대적 규칙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강한 경향성을 말한다. Eskola(2004:86)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Universal laws (e.g. of simplification, explicitation and conventionality) are not necessarily absolute laws, but strong statistical tendencies that can be observed widely (showing what translations on the average tend to do and what they do not tend to do).

10) 상호 사건관계 'and' 접속 구문의 연구 대상을 1장으로 국한한 이유는 상호 사건관계 'and'의 외축의미 현상은 일반언어학 연구에서 잘 알려진 현상이며 'and' 상호 사건관계에 대한 유형(type)은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 순서' '원인 결과' '배경 전경'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발생하는 20개의 'and'의 해당 토큰(token)의 명사화에 대한 두 번역본의 현상을 분석하는 것도 양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로 의미 보충되지 않은 상태의 언어 의미는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한 명제 내용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화용적으로 의미 보충되지 않은 언어 의미는 의미적으로 미확정적이다.<sup>11)</sup> 따라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의 명제의미는 언어적으로 입력된 의미가 화용적 의미 보충을 거쳐 발전된 것으로 적합성 이론에서는 이를 외측 또는 명시의미라고 부른다.

외측의미는 의사소통에서 화자가 발화한 언어표현의 논리 형태가 화용적으로 의미 보충되어 발전된 화용적 명제의미 내용으로 언어적 부호의미와 화용의미의 혼성체이다. 이러한 외측의미의 혼성적 특성은 아래 제시된 Sperber and Wilson(1986/95: 182)의 외측에 대한 정의에서도 볼 수 있다.

An assumption communicated by an utterance U is EXPLICIT [hence an “explicature”] if and only if it is a development of a logical form encoded by U.

위의 정의에서 ‘a logical form’은 언어적으로 입력된 의미, 즉 부호의미를 말하며 이에 기초하여 발전된 화용적 보충의미가 결합된 것이 의사소통된 상정의미로 명시의미, 즉 외측에 해당된다.

번역 텍스트에 나타난 접속어 ‘and’ 구문의 자유로운 의미보충(free enrichment) 현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접속어 ‘and’ 구문에 대한 화용 의미적 특징을 보기로 하자.<sup>12)</sup> 접속어 ‘and’에 의해 연결된 구문은 의미적으로 대칭과 비대칭 ‘and’ 접속어 구문으로 구별된다. 특히 후자는 ‘상호 사건 관계 ‘and’ 구문’으로 불린다(조의연 2003). 대칭 ‘and’ 접속어 구문의 경우와 달리 비대칭 접속 구문은 두 사건의 순서가 역으로 재배치되었을 경우, 재배치 이전의 상호 사건 관계 의미가 상실된다. 아래의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

11) Grice가 의사소통 의미의 출발이 되는 ‘말해진 것’(what is said)을 제기한 이후, 추론적 의사소통 모형에 기반한 적합성 이론(Sperber and Wilson 2006, Carston 2002 등)에서는 이 ‘말해진 것’은 의사소통에서 명시적 화자의미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2)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Carston (2002: 3장)을 참조하였음.

- (2) a. It's summer in England and it's winter in New Zealand.
- b. It's winter in New Zealand and it's summer in England.
- (3) a. She shot him in the head and he died instantly.
- b. He died instantly and she shot him in the head.

(2a)의 대칭 구문은 두 접속절의 순서가 (2b)와 같이 재배치되어도 의미의 상실이나 변화가 없다. 반면에 (3a)의 경우, 두 접속절의 순서가 (3b)와 같이 재배치되면 (3a)의 두 접속절 사이에 존재하는 '원인-결과'의 의미가 사라진다. Carston(2002: 224)이 지적했듯이, 총격과 사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3b)는 그가 사망한 뒤, 그녀가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는 정보를 불러일으킨다. 비대칭 접속어 'and' 구문의 상호 사건 관계에 대한 해석은 사회적 경험의 틀(frame)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대칭 접속어 구문에 대한 사건 관계는 해당 사건 또는 상황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화자/청자의 일반적 배경지식이 작동하게 된다. Carston(2002)에서 인용된 아래의 예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설정된 경험의 틀에 의해서,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and then'의 시간 순서로, 'and as a result'와 같은 원인-결과와 관계로, 그리고 'because'와 같은 이유의 관계로 각각 해석됨을 보여준다.

- (4) a. He handed her the scalpel and she made the incision.
- b. She shot him in the head and he died instantly.
- c. He was shortsighted and mistook her for a hatstand.<sup>13)</sup>

13) 접속어 'and'로 결합된 이러한 두 사건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용 의미적 해석을 두고 Grice와 후기 Grice 학파는 이를 일반 대화함축(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으로 다루고 있으며, 반면에 적합성 이론에서는 외측으로 보고 있다. 언어적 제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경험적 틀에 의해 유발되는 화용의미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미보충(free enrichment)이라고도 불린다. 'and' 접속어 구문의 화용 현상의 광범위한 논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Carston(2002: 3장)을 참조하기 바람. 이 논문은 Carston을 따라, 'and' 접속어 구문에서 발생하는 화용 의미가 해당 접속어 구문의 진리 조건적 의미, 즉 명제의미에 기여하거나 보충하는 예들에 근거하여 해당 화용의미는 일반 대화 함축이 아닌 명제의미를 구성하는 외측으로 본다. 예를 들어, 아래의 발화에서 두 접속절이 기술하는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

함축과 달리 외측은 해석과정에서 보면 정보처리 비용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접근이 더 용이한 정보이다. 특히 상호 사건 관계 접속어 ‘and’ 구문에서 발생하는 화용의미는 많은 경우 범형화된(stereotyped) 우리의 사회적 경험 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한 다른 화용적 해석 요소들 보다 정보적 접근성이 쉽다. 특히 ‘and’ 접속어 구문의 상호 사건 관계 의미 해석은 진리 조건적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대칭 ‘and’ 구문의 상호 사건 관계 의미는 ‘화용적으로 말하여진 것’(pragmatically what is said)으로 명제의미를 보충하는 의미 내용이다. 따라서 발화되지 않은 정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전달된 의미 내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암시적이지만, 부분적으로 명시적”이다(Bach 2006:5). 아래의 대화에서 Bob의 발화에 대한 청자 Ann의 추론과정을 구성해보기로 하자.

맥락: Bob has broken his leg.

Ann: Are you entitled to accident compensation?

Bob: Well, a manhole was left uncovered and I fell in.

위의 대화 맥락에서 Ann은 자신의 ‘예-아니요’ 질문에 대한 Bob의 간접 답변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추론과정을 거쳐 함축의미 ‘Bob is entitled to accident compensation’을 도출한다:

- a. 맥락 상정의미: If you fall in a hole because of a manhole cover being left off, you are entitled to accident compensation.
- b. 외측 명제의미: A manhole was left uncovered and as a result Bob fell

간 순서’(temporal ordering)의미가 함축으로 존재한다면, 아래의 발화는 모순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 (i) He didn’t go to a bank and steal some money; he stole some money and went to a bank.

위의 예에서 두 절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 순서 의미는 진리조건 의미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발화 내의 어떤 언어적 요소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용과정의 하나인 자유로운 의미보충에 해당된다.



in the hole.

c. 함축의미: Bob is entitled to accident compensation.

Bob의 발화가 Ann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최적의 적합성을 만족시킨 발화로 Ann은 해석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해석 전략에 따라 Bob의 발화의미(즉, 위의 외측 명제의미 (b))를 해석한다. 자신의 질문 “Are you entitled to accident compensation?”에 대한 적합성을 만족시킨 답변으로 Bob의 발화 “A manhole was left uncovered and I fell in”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두 정보와 관련된 범형화된 맥락 상정의미 (a)를 자신의 기억장치에서 끌어내어 추론 과정의 전제로 활용한다.<sup>14)</sup> 이 맥락 상정의미 (a)와 발화의 외측의미 (b)로 부터 Ann은 함축의미 결론 (c) ‘Bob is entitled to compensation’을 도출한다. 맨홀에 빠진 사고로 인한 보상은 사회적 통념상 그 인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자 Ann은 Bob의 발화 내의 두 사건 관계 ‘a manhole was left covered and I fell in’에 대한 해석을 원인-결과로 하게 된다. 이러한 두 사건에 대한 원인 결과의 화용의미가 보충된 외측의미 (b)를 얻는 데 발생한 정보처리 비용은 맥락 상정의미 (a)와 외측 명제의미 (b)를 전제로 도출된 함축 의미(c)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측은 함축보다 정보적으로 더 접근이 용이하며 정보처리 비용이 더 적게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외측이 번역 텍스트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는 검증의 대상이 된다. 그 이유는 상호 사건 관계 접속어 ‘and’ 구문의 외측은 언어적 제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보충된 해당 정보 관련 추론 과정이 수의적(optional)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canati 2004: 24-6). 아래의 예시가 보여주듯이, 사건 관계 등위 접속어 ‘and’ 구문과 관계된 화용적 의미보충 현상은 수의적이며 이것이 번역 텍스트에서 명시화되는 여부 또한 수의적이기도 하다.

14) 적합성 이론의 해석 전략은 다음과 같다:

- (a) Consider interpretation (disambiguations, reference assignments, enrichments, contextual assumptions, etc.) in order of accessibility (i.e. follow a path of least effort in computing cognitive effects).
- (b) Stop when the expected level of relevance is reached. (Carston 2002: 143)

<예시 3>

ST He had the gripe, and I figured I probably wouldn't see him again till Christmas vacation started.

T1 선생은 독감에 걸려있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될 때까지 그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T2 지금 선생이 독감에 걸려 있었고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될 때까지는 그분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T1의 번역자는 인과관계 사건 접속어 ‘그래서’를 써서 독자들에게 원천 텍스트 등위 접속 구문의 첫 번째 사건이 다음에 서술된 사건 상황의 원인으로 해석하도록 명시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T2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시적 해석 제약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비대칭 상호 사건 관계 ‘and’ 등위 접속 구문에 대한 해석은 번역자 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명시화되는 전략도 다를 수 있다.

특정 함축적 전제를 필요로 하는 함축적 결론과 달리 상호 사건 관계 접속어 ‘and’ 구문의 외축의미는 일반 대화 함축의 특성이 그렇듯이 해석자의 범형화된 경험에 기초하므로 청자는 가장 접근이 용이한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이 해석이 해당 발화의 적합성을 만족시킨 해석으로 청자의 기대에 부합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맥락에 따라 비록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상호 사건 관계 ‘and’ 구문의 의미보충 내용은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가장 전형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해석인 만큼, ‘말해진 것’(what is said)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Carston 2002, Recanati 2004). 따라서 번역자로서 이러한 의미보충 내용을 ‘말해진 것’(what is said)의 일부로 인식한다면 번역자마다 이를 명시화시키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우리는 이 논문에서 상호 사건 관계 접속어 ‘and’ 구문의 외축의미는 목표 텍스트에서 명시화되고 있음을 검증할 것이다.

### 3. 접속어 ‘and’ 의미보충과 명시화

명시화에 대한 접근은 이를 ‘문체적 번역 기법’(stylistic translation technic)

으로 번역학 연구에 처음 소개한 Viany and Darbelnet(1958/1995)에서 부터 (텍스트 해석) '위기관리'(risk-management)로 설명하려는 Pym(2005)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지만, 그 현상은 '원천 텍스트의 암시적 정보를 도착 텍스트에서 명시화시키는' 것으로 번역의 보편적 현상으로 번역학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Papai 2004). 이 논문은 Blum-Kulka (1986/2001: 300)가 제시한 '명시화 가설'에 기초하여 상호 사건 관계 접속어 'and' 구문에 의미 보충된 외측에 대한 명시화를 다룰 것이다. 먼저 그녀가 제시한 '명시화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s performed by the translator on the source text might lead to a TL [target language] text which is more redundant than the source text. This redundancy can be expressed by a rise in the level of cohesive explicitness in the TL text. This argument may be stated as "the explicitation hypothesis", which postulates an observed cohesive explicitness from SL [source language] to TL texts regardless of the increase traceable t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inguistic and textual systems involved. It follows that explicitation is viewed here as inherent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이 '명시화 가설'에 따르면 번역자는 자신의 원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 목표 텍스트에 원천 텍스트 보다 "잉여적이라 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데 이 추가된 정보는 목표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영어 목표 텍스트는 포르투갈어 원천 텍스트에 결여되어 있는 부사어 'so'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목표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Source: Voc também gosta dela?  
(literal translation: You like her too?)  
Target: So you like her too? (Pym 2004: 4에서 인용)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원인-)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어는 상호 사건관계에 대한 응집성을 높인다. 이 논문은 상호 사건 관계 접속어 'and' 구문에 의미 보충된 화용정보는 번역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아울러 이 의미보충은 수의적이기 때문에 이 수의적 정보가 번역 텍스트에서 번역자에 의해 명시화되면 번역 텍스트는 잉여적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논문은 번역과정에서 발생한 명시화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사이에 발생한 명시화 현상을 대조 분석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Papai 2004 참조).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 사건 관계 접속어 ‘and’ 구문의 외측에 기여하는 화용정보가 번역과정에서 명시화되는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논문은 [호밀밭의 파수꾼]의 1장에 나타난 상호 사건 관계 접속어 ‘and’ 구문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출발 텍스트의 해당 자료가 번역 텍스트에 명시화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번역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였다.

원천 텍스트 *The Catcher in the Rye*의 1장에 발생한 사건 관계 접속어 ‘and’ 구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었다.

표 1. 접속어 ‘and’ 구문의 상호 사건관계 대칭성 분포

접속어 ‘and’ 관계 발생 빈도수	대칭 관계	비대칭 관계	중의적 관계
	6	20	3

두 사건 또는 상태가 서로 대칭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아래의 (4a)와 같은 구문과 사건 관계가 대칭성에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4b)와 같은 구문을 제외한 상호 사건관계가 비대칭적인 접속어 ‘and’ 구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4) a. My ears were hurting and I could hardly move my fingers at all.

b. She hung up my coat in the hall closet, and I sort of brushed my hair back with my hand.

(4a)의 두 사건은 홀든이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도중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를 묘사하는 상황이다. 이 두 상황은 두 신체기관에 대한 묘사를 각각하고 있어 대칭적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 번역 텍스트는 등위접속어 ‘고’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예시 4>

ST My ears were hurting and I could hardly move my fingers at all.

T1 귀가 아프고 손가락은 곱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T2 귀가 시리고 손가락을 제대로 놀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4b)의 경우,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서로 다른 두 사건을 나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래의 두 번역이 이를 보여준다.

<예시 5>

ST She hung up my coat in the hall closet, and I sort of brushed my hair back with my hand.

T1 부인이 내 외투를 현관 옷장 속에 거는 동안 나는 손으로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T2 사모님은 내 외투를 현관에 있는 옷장에 거셨습니다. 나는 손으로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겼습니다.

T1의 번역텍스트는 위의 두 사건을 동시적인 시간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T2는 두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나열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위의 두 경우와 달리 아래의 두 사건은 비대칭적 상호 사건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은 것과 머리 빗질을 자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 결과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시 6>

ST I wear a crew cut quite frequently and I never have to comb it much.

T1 나는 머리를 곧잘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았기 때문에 별로 빗질할 필요가 없다.

T2 보통 스포츠 형 머리를 자주 하는 편이라 빗질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위의 두 번역 결과물이 보여주듯이, 앞의 사건은 뒤의 사건의 원인이 되는 배경

으로 그리고 뒤의 사건은 앞의 사건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원천 텍스트에 이러한 비대칭 관계에 있는 접속어 ‘and’ 구문이 20회 출현하는데 목표 텍스트 T1의 경우 상호 사건 관계의 의미보충 내용을 명시화하는 경우가 15회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나머지 5회는 접속어를 생략하거나 등위 접속형태소 ‘~고’로 번역하고 있었다. 아래의 예들은 접속어를 생략하거나 접속형태소 ‘~고’로 번역된 경우들이다.

<예시 7>

ST Anyway, it was December and all, and it was cold as a witch's teat  
.....

T1 하였든 12월 이었다. 날씨는 마녀의 젓꼭지처럼 매섭게 추웠다.....

<예시 8>

ST You could see the field from there, and you could see the two teams  
bashing each other all over the place.

T1 거기서는 경기장 전체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었고 양쪽 팀이 온 경기장을 누비며 밀고 밀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목표 텍스트 T2의 경우는 비대칭 ‘and’ 접속어 구문들의 상호 사건 관계의 외축의미가 텍스트로 명시화된 경우는 14회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아래와 같이 등위 접속형태소 ‘~고’로 텍스트화 되거나 두 개의 동사가 합병되어 상호 사건 관계가 명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예시 9>

ST It kept getting darker and darker, and we could hardly see the ball  
any more, .....

T2 날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공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

비대칭 접속어 ‘and’ 구문의 상호 사건 관계의 외축의미가 번역 텍스트에 명시화된 경우의 빈도수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sup>15)</sup>

15) 원문 텍스트에 나타난 비대칭 접속어 ‘and’ 구문 전체 수는 20개이다. 이 가운데 동

표 2. 비대칭 접속어 'and' 구문 외측의 명시화 발생 빈도

ST	T1		T2	
	명시화	비명시화	명시화	비명시화
비대칭 'and' 구문	15 (75%)	5 (25%)	14 (70%)	6 (30%)

위의 표가 보여주듯이 원천 텍스트의 비대칭 접속어 'and' 구문의 상호 사건 관계의 화용의미가 보충된 외측이 두 목표 텍스트에서 공히 70%를 상회할 정도로 명시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양적 정보는 비록 그 검증의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소설 텍스트의 원천 텍스트에서 화용적으로 의미 보충된 외측의미는 번역자의 차이 없이 목표 텍스트에서 명시화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번역과정에서 명시화는 텍스트의 응집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번역의 내재적 특징이라는 Blum-Kulka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아래의 예들은 원문 텍스트의 비대칭 접속어 'and' 구문의 상호 사건 관계 의미가 번역 텍스트에서 명시화된 경우들을 보여준다. 우리는 관련 구문에서 의미 보충된 내용이 번역 텍스트 T1 그리고 T2에서 동일한 정보로 명시화된 경우와 T1, T2에서 서로 다른 의미 내용으로 명시화된 경우를 소개할 것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보면, 아래 원천 텍스트의 첫 번째 접속절의 '그 게임이 그 해의 최종 게임이다'라는 명제의미는 우리의 경험 틀 내에서 두 번째 접속절의 이유로 해석되고 있다.

<예시 10>

ST It was the last game of the year, and you were supposed to commit suicide or something if old Pency didn't win.

T1 그것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최종 시합이었기 때문에 만약 전통 있는 펜시가 지는 날이면 자살을 하거나 그와 비슷한 비장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들 생각하고 있었다.

사구로 구성된 'and' 접속어 구문 10개 가운데 2개는 도착 텍스트에서 동사들이 합병되어 단일 동사화 되어 목표 텍스트에서 비대칭성이 상실되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전체의 표본 수에서 제외하면 외측의미가 텍스트에서 명시화된 빈도수는 위에 제시된 표 보다 높다.

T2 그 해 최종 게임이었기 때문에 만약 펜시 학교가 지는 날이면 녀석들은 자살하거나 뭐 그런 짓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역 텍스트의 번역자가 두 사건의 상호관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목표 텍스트에서 명시화시킴으로써 원천 텍스트와는 다른 상호 접속 관계를 텍스트에서 구현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일한 경우는 아래의 예시에서도 관찰된다.

<예시 11>

ST They didn't have a maid or anything, and they always opened the door themselves

T1 선생의 집엔 하녀니 뭐니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선생이나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T2 선생의 집에는 하녀 같은 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선생이나 사모님이 손수 나와 문을 열어주셨다.

한편, 아래의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종속절 내에 포함된 두 접속절 'and' 사이의 사건 관계에 대한 해석은 번역자의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원문 텍스트에서는 이 'and' 접속어로 연결된 두 상황은 모두 주절의 상황에 대한 배경으로 부대 상황을 묘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and' 접속 구문 내의 두 사건은 시간상 동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예시 12>

ST I kept standing next to the crazy cannon, looking down at the game and freezing my ass off.

T1 어쨌든 나는 그 바보 같은 대포 옆에 서서 퐁퐁 언 채로 시합을 바라보고 있었다.

T2 어쨌든 엉덩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시린데도 정말 웃기게 생겨먹은 대포 옆에 서서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T1 번역 텍스트는 원천 텍스트와 달리, 정보 구조상, 주절의 전경 정보 'I kept standing next to the crazy cannon'을 배경 정보로 강등시키고 부사절의



두 번째 ‘and’ 접속절의 정보 ‘looking down at the game’을 전경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접속사 ‘and’ 구문 내의 두 번째 사건 ‘freezing my ass off’를 첫 번째 사건 ‘looking down at the game’의 부대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T2 번역 텍스트는 원천 텍스트의 두 번째 ‘and’ 접속절 ‘freezing my ass off’를 등위 구문에서 독립시켜 두 번째 ‘and’ 접속절 ‘looking down at the game’에 대한 역경(adversity)의 상황으로 배경 정보화시키고 있다. <예시 12>의 이러한 경우와 달리, 한 번역 텍스트에서 해당 의미 보충 정보가 명시화되는가 하면, 다른 번역 텍스트에서는 그렇지 않은 채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아래의 예가 이를 보여준다.

<예시 13>

ST Anyway, it was December and all, and it was cold as a witch’s teat

.....

T1 하였든 12월 이었다. 날씨는 마녀의 젖꼭지처럼 매섭게 추웠다.....

T2 어쨌든 때는 12월이라 계모의 눈살만큼이나 날씨가 매우 싸늘했습니다.

원문 텍스트에서 첫 번째 ‘and’ 접속절의 ‘it was December’라는 명제의미는 두 번째 접속절의 ‘it was cold as a witch’s teat’의 원인 또는 이유로 해석된다. 이 의미 보충된 내용을 T2는 명시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T1은 암시적으로 원문과 같이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대칭 ‘and’ 접속구문의 상호 사건 관계에 대한 화용정보가 의미 보충된 원천 텍스트의 외축과 관련하여 T1에서는 해당 외축의 75%가 T2에서는 70%가 목표 텍스트에서 명시화되고 있다. 외축에 기여하는 의미 보충된 화용정보는 발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의미 내용”(Bach 2006:6)이므로 번역자의 차이 없이 번역과정에서 암시적 정보인 함축의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명시화되기 쉬운 정보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비대칭 접속어 ‘and’ 상호 사건 관계 구문의 외축에 기여한 화용정보는 “말 안했지만 말한 것으로 여겨지는 의미 내용”으로 이의 명시화는 목표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번역자는 이러한 외축의미를 번역 텍스트에서 명시화시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검증된 자료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인 외축의 명시화 현상은 명시화가 번역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번역학 연구의 입장을 뒷받침 하기도 한다.

#### 4. 글을 맺으며

이 논문에서 우리는 원천 텍스트에서 발생하는 상호 사건 관계 접속어 ‘and’ 구문의 외축이 번역과정에서 목표 텍스트에 명시화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셸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1장에 나타난 비대칭 상호 사건 관계의 ‘and’ 접속어 구문의 외축이 두 번역 텍스트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화용적 의미보충을 포함한 원천 텍스트의 외축이 각각의 번역 텍스트에서 70% 이상 명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 논문이 가정한 Blum-Kulka의 명시화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한국어 번역자는 영어 비대칭 접속어 ‘and’ 구문의 화용적 의미보충 내용은 번역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명시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번역과정에 나타난 이러한 외축의 명시화 현상을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외축은 함축에 비해 말해지지 않았지만 언어적으로 입력된 정보인 논리 형태로 부터 발전된 정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의미내용이다. 따라서 이 외축에 기여한 의미보충 내용은 번역자에게 정보적 접근성이 함축 보다 용이한 정보이기 때문에 번역 텍스트에서 명시화되기 쉬운 것이다. 외축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화용적 의미보충 내용이 번역 텍스트에서 명시화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은 번역자는 이를 “말해지지 않았지만 말해진” 정보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국지연 · 이성범 (2007) 「“말해진 것”의 명시의미: 적합성이론 분석」, 『담화와 인지』 14(2): 1-25.

- 송영 (2008) 『부랑일기』, Jason Park 번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신지선 (2010)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명시화 전략」, 출판용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의연 (2003) 「인지의미론에서 본 영어 상호-사건 관계 'and' 접속구문: 진정한 등위접속인가?」, 『담화와 인지』 10(2): 177-195.
- Bach, Kent (2006) 'Implicature vs. explicature: What's the difference?' Paper delivered at the Workshop on "Explicit Communication". Granada (Spain), May 31-June 2.
- Blum-Kulka, Shoshana (2001) 'Shif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translation.' First published in Juliane House and Shoshana Blum-Kulka (eds.) 1986. *Interlingu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Discourse and cognition in transl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7-35. Cited here from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298-313, London: Routledge.
- Carston, Robyn (2002) *Thoughts and Utterances: The Pragmatics of Explicit Communication*. Oxford: Blackwell.
- Carston, Robyn (2006) 'Relevance Theory and the Saying/Implicating Distinction.' In L. Horn and G. Ward (eds.) *Handbook of Pragmatics*, 633-56. Oxford: Blackwell.
- Eskola, Sari (2004) 'Untypical frequencies in translated language. A corpus-based study on a literary corpus of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Finnish.' In Anna Mauranen and Pekka Kujamaki (eds.) *Translation Universals. Do they exist?*, 83-100. Amsterdam: John Benjamins.
- Grice,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eter Cole &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Gutt, Ernst-August (1991)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Oxford: Blackwell.
- Gutt, Ernst-August (1996) 'On the Nature and treatment of implicit information in literary translation: A Relevance-theoretic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8: 241-256.

- Kempson, Ruth (ed.) (1988) *Mental Representations: the Interface between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pai, Vilma (2004) 'Explicitation. A universal of translated text?.' In Anna Mauranen and Pekka Kujamaki (eds.) *Translation Universals. Do they exist?*, 143-164. Amsterdam: John Benjamins.
- Pym, Anthony (2005) 'Explaining explicitation.' In Krisztina Karoly and Agota Foris(eds.) *New Trends in Translation Studies in Honour of Kinga Klaudy*, Budapest: Akademiai Kiado.
- Recanati, Francois (1991) 'The Pragmatics of what is said.' In Steven Davis (ed). *Pragmatics: A Reader*, 97-12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canati, Francois (2004) *Literal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rber, Dan & Wilson, Deirdre (1986/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perber, Dan & Wilson, Deirdre (2006) 'Relevance Theory.' In L. Horn and G. Ward(eds.) *Handbook of Pragmatics*, 607-32. Oxford: Blackwell.
- Viany, Jean-Paul and Jean Darbelnet (1995) *Comparative stylistics of French and English: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trans. of Viany and Darbelnet (1958) by Juan C. Sager and Marie-Josée Hamel. Amsterdam: John Benjamins.
- Zhonggang, Sang (2006) 'A Relevance theory perspective on translating the implicit information in literary texts.' *Journal of Translation*, 2(2): 43-60.

#### 분석대상 텍스트

- ST: Jerome David Salinger. 1951. *The Catcher in the Rye*. London: Penguin.
- TT1: 이덕형. 1985. 『호밀밭의 파수꾼』. 서울: 문예출판사.
- TT2: 김옥동 · 엄경숙. 1994. 『호밀밭의 파수꾼』. 서울: 현암사

[Abstract]

**Explicitation of Explicatures in English-to-Korean Translation Process:  
A Pragmatic Analysis of Asymmetric 'and' Conjunction**

Cho, Euiyon  
(Dongguk University, Seoul)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how explicatures in a source text are translated in its corresponding target text. It will show that in translation process, explicatures of 'and' conjunction utterances in a source text have a strong statistical tendency to be explicated in their corresponding Korean target texts. The results are on the par with the spirit of Sperber and Wilson's (1986) position on the nature of explicature and Carston's subsequent study (2002) on that of 'and' conjunction. This study is based the explicitation hypothesis proposed by Blum-Kulka (1986/2001) and has investigated two translated Korean texts of American English novel *The Catcher in the Rye* by J.D. Salinger to see how the explicatures of English asymmetric 'and' conjunction utterances have been translated in them. Both of the translated texts are found to have a strong statistical tendency of the explicitation of the explicatures of 'and' conjunction. It supports the Relevance theoretic position that explicatures communicated by utterances are explicit.

▶ Key Words: explicitation, explicature, relevance, translation process, 'and' conjunction, pragmatic enrichment, inference

조의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전공 교수

choey@dongguk.edu

관심분야: 인지의미론, 화용론,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1년 5월 12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04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2일